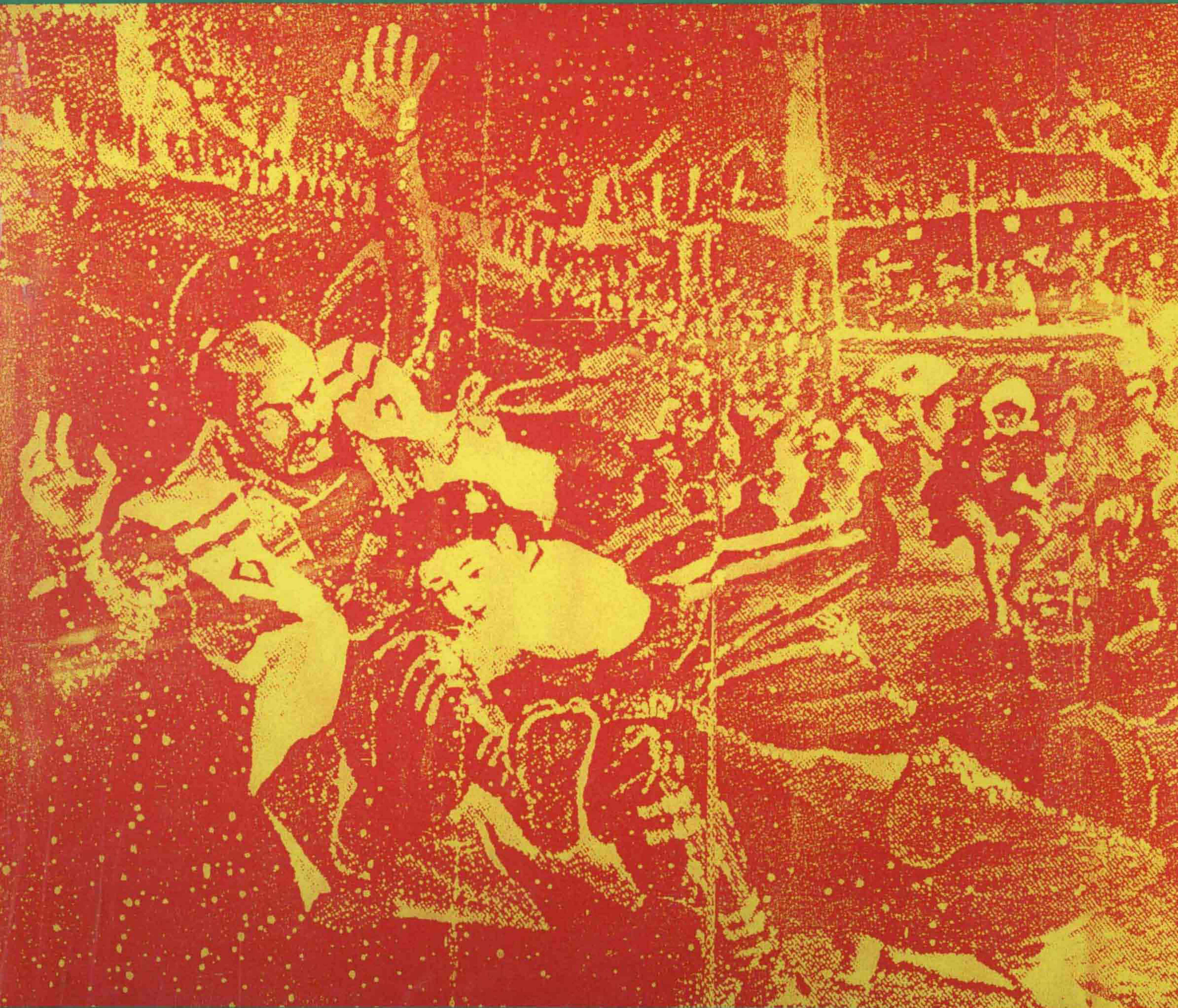


탄신 423주년기념

의암 주논개제전

(제30회 장수군민의날)



- 일시 : 1997. 10. 3 (금) ~ 10. 5 (일)
- 장소 : 의암사. 군내일원
- 주최 :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장수군
- 주관 : 장수문화원
- 후원 : KBS. MBC. 전북일보사. 팔공청년회.
장수군연예인협회. 교보생명. (주)동남레미콘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 9월 3일(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출생.
- 부친은 주달문이고 모친은 밀양박씨로 학덕이 높은 집안임.
- 13세에 부친 별세, 편모슬하에서 자람.
- 숙부 주달무가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팔려고 하자 모녀는 모친의 친정인 경상남도 안의현으로 피신.
- 김풍헌의 고소로 장수현 포리에 피체(被逮) 취조 결과 무죄방면, 무의무탁한 논개님을 최경희 현감이 부인 김씨의 시중을 들게함.
- 김씨 부인이 사망하자 1591년(선조 24년) 최현감의 후실로 들어감.
-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 최현감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주받자 논개님 진주성으로 옮김.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최경희 장군 남강에 투신 순국.
- 동년 7월 7일 축석루에서 왜군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유인 남강에 투신 순절.
- 그후 나라에서 의암(義巖)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

郡政方針

새롭고 活氣찬 長水建設

郡民憲章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 고향을 豊饒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郡民은 自由를 尊重하고 責任과 義務를 다하여 民主文化를 꽃 피운다.
2. 우리 郡民은 良心과 信義를 지키고 協同奉仕하며 公共秩序를 生活化 한다.
3. 우리 郡民은 勤勉 誠實하며 進取的인 意志로 잘 사는 내고장을 開拓한다.
4. 우리 郡民은 心身을 鍊磨하여 健全한 趣味와 情緒純化로 幸福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郡民은 傳統文化를 啓發하고 서로 和合하여 내 故鄉 사랑에 앞장선다.

장수의 노래

이 기 반 시
이 주 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정 답 게 아 - 림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앳 뿌 려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롭
 게 - 빛 을 내 는 회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후렴)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회망의 장-수

주논개님의 유적



▲ 장수생장향수명비



▲ 의암사 영정각



◀ 주논개 생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 의암사 기념관



▲ 생가지 사적불망비

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 論介 生長 過程

논개는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密陽朴氏)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여서 모두들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戌)은 개(犬)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論介)는 천품(天稟)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시는 마을 서당(書堂)에서 나이 10여세가 되기까지 한문을 배웠다.

선조(宣祖) 21년(1588) 8월 이 지방사람 김풍헌(金風憲)이 논개(論介)의 인품에 탐을 내어 논개의 숙부인 주달무(朱達武)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치인 아들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시키려 했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위 주달무는 도망하자 김풍헌은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으며 그 결과 박씨 부인은 억울하게도 5년간 관가(官家)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에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하겠다고 간청하자 현감 최경회(崔慶會)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모녀를 방면하였다.



▲ 誣告判決 받는 論介 母女



▲ 晉州城 싸움

선조(宣祖) 25년(1592)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 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晉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따라 갔다. 당시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성내(城內)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병에게 퍼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선조(宣祖) 26년(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려던 최경회(崔慶會) 부군(夫君)마저 전사(戰死)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을 기해 축석루(矗石樓)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잔치마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돋구어질 무렵 그는 왜장 게다니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危岩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 晉州 南江 殉死

탄신 423주 의암 주논개제전 행사 안내

제 30회 국민의 날

체 육 행 사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군민체육대회	10. 3(금)	10:00 ~ 18:40	공설운동장	

전 야 제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축 등 행 렬 불 꽃 놀 이 군민위안공연 풍물야시장	10. 3(금) 10.3~10.4	18:40 ~ 19:20 19:20 ~ 19:26 19:30 ~ 21:30 2일간	보건의료원 ~ 의암사 남산공원 특설무대 의암사 주차장 및 주변	

본 행사 및 문화행사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제례봉행 참배 기념식 농악시연 전통혼례 의암시화전 사진전시회 한시백일장 의암백일장 경노잔치 국악공연 카퍼레이드	10. 4(토)	09:00 ~ 09:30 09:30 ~ 17:00 10:00 ~ 11:10 11:10 ~ 11:40 11:40 ~ 12:30 09:00 ~ 17:00 〃 10:00 ~ 14:00	영 정 각 〃 특 설 무 대 의 암 사 광 장 특 설 무 대 의 암 사 경 내 〃 장 수 향 교 논 개 생 가 지 남 산 공 원 특 설 무 대 시 내	
논개선발 시낭송회 미술전시회 KBS전국노래자랑예심 군민노래자랑 궁도대회 KBS전국노래자랑녹화	10. 1(수) 10. 2(목) 10.2~10.5 10. 4(토) 10. 5(일)	10:00 ~ 14:00 10:00 ~ 14:00 11:30 ~ 13:30 12:30 ~ 14:00 13:30 ~ 14:00 16:00 ~ 16:30 14:00 ~ 16:00 16:00 ~ 20:00 4일간 14:00 ~ 20:00 19:00 ~ 21:00 09:00 ~ 18:00 10:00 ~ 15:00	장 논 개 생 가 지 남 산 공 원 특 설 무 대 시 내 특 설 무 대 군농협 2층 회의실 〃 군 민 회 관 특 설 무 대 벽 계 정 공 설 운 동 장	

식 사 (式辭)



의암주논개제전위원장
장 수 문 화 원 장
김 진 영

오늘은 二德 三節 五義의 고장 長水에서 精神的 支柱로 崇仰하는 義巖 朱論介의 誕辰 423주가 되는 뜻깊은 날(음 9월 3일)이며 이날을 기리고자 군민의 날로 지정한지 제30회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왜장 계야무라 로구스게를 끌어안고 南江에 투신 순절하신지 404주년(음 7월 7일)이 되기도 합니다.

長安山の 精氣와 四甲戌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 朱村 마을에서 태어난 義巖 朱論介의 誕辰과 忠烈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전행사에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内外貴賓, 郡民과 더불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참해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최고 榮譽인 郡民의 章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5일에 걸쳐 祭禮奉行을 비롯 논개뽑기 등 20여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生家에서 祠堂까지 논개열 이어받기 등 10여종의 民俗競技가 군민이 하나되는 큰 잔치한마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KBS 전국노래자랑은 잔치마당의 흥을 한결 더해줄 것입니다. 지방자치 3연차, 민주도 의암제전 5연차가 되는 금년의 제전행사를 통해 군민의 가슴마다에 의암제의 뿌듯한 보람을 한층 더 키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고향이 “제일”이라는 자존적 力量을 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북 울리는 잔치마당에서 서로 손잡고 용트림하는 내 고향의 찬가를 신명나게 부르고 춤을 춥시다. 끝으로, 이번 제전행사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KBS 남원방송국, 전북일보사 그리고 제전위원, 기관단체 임직원과 성원해 주신 군민에게 깊은 감사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0월 4일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기 념 사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을 맞아 높푸른 가을하늘 아래, 우리 고장이 낳은 영원한 충절의 여인이신 의암주논개님의 탄신 423주년과 제3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어 성대한 체육행사를 거행하고, 군민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제전행사가 다채롭고 향토적인 축제로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공로로 군민의 이름으로 장수군민의 장을 받으시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량과 소득증대로 전국에 장수사과의 명성을 드높혀, 금년도 사과왕으로 선발되어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의암주논개님께서서는 400여년전 왜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애국 충정의 일념으로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받쳐 산화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호국의 여인상이자 충절의 여신으로 깊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의 얼을 계승하고, 올바른 사관을 정립하며, 님의 유적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논개사 정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의암사 성역화 사업은 내년 초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겠으며, 논개님이 탄생하신 생가지를 새로이 정비하는 사업과, 이곳 의암사와 생가지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개설, 한 울타리 속의 문화성지로 정비하여 님의 발자취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 삼절의 유적인 향교와 타루비도 말끔히 정비하여 군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호국 충절과 찬연한 전통을 자랑삼아 살아가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 자치군정이 어느덧 3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롭고 활기찬 장수건설』을 위하여 터를 닦고 지주들에 기등을 세우는 등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빈약하였던 군재정을 중앙지원 확대와 세수증대로 재정력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813ha의 경지정리와 사과, 화훼, 배단지 등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로선과 서동로 및 남천로 개설 등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고, 문화 복지시설 및 군민 보건향상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변화와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 장수군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과, 대전~진주간 및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이며, 대기업의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폐수처리 시설로 산자수려한 청정자원을 보존하며 취락구조 개선 및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전국 제일의 사과 수출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풍부한 산림을 자원화 하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세대에 축복받는 장수 고을을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합과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1997년 10월 4일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축 사



장수군 의회의장
정 희 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원근을 불문하고 우리 장수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신 제423주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30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군민이 하나되는 성대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군은 삼절의 자랑스런 얼을 계승하고 있으며
인심이 좋고 그 기상이 맑아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그 몸을 나라위해
바쳤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효부와 열녀가 있어 지역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므로써 충효열의 고장임을 자부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구국의 일념
으로 19살 꽃다운 젊음을 나라위해 바치므로써 호국의 숭고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 군민의 얼을 대변해 주는 정신적 지주일 뿐 아니라
역사에 귀감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오늘을 장수 군민의 날로
정하여 그 추모의 정을 기리고 뜻있는 행사를 통하여 군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행사를 더욱더 알차게 발전시켜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민족혼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 전파시키고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을 결집하여 활기찬 장수를 만들어 나가므로써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의 정서와 지방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
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 보다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더불어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제전위원과 김상두 장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여러
분의 가정 가정마다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0월 4일

장수군 의회의장 정 희 택

축 사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장수군민 여러분!

어느고장 보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인 의암 주논개 제전과 장수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지방자치 실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장수군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군민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개발이 우선시 되던 지난날에는 장수군이 낙후 지역으로 소외를 면치 못했으나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추구해 나가야 할 2천년대에는 장수군이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수군의 무한한 가용자원과 잠재력은 이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어느지역 못지않은 소득 높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총질의 상징인 주논개 제전을 전국적인 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 이를 장수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수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지역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욕이 불타오를 때 비로소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은 그런 면에서 희망찬 미래가 기약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같은 군민 축제를 통해 군민의 결속을 더욱 다지고 애향심을 꽃피워 나가길 바랍니다.

장수군의 눈부신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축 사



국 회 의 원
정 세 균

땀흘려 가꾸어진 결실이 알알이 황금물결치는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이신 의암 주논개 열사 탄신 423주 제전과, 군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 장수는 전라좌도 인맥의 깊은 뿌리를 바탕으로 한, 3절5의의 절의에 빛나는 인심이 순박하기로 소문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로 의암 주논개 열사의 고귀한 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본 제전과 군민의 날 행사는 그 유를 달리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가치로운 행사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지는 단합의 장을 통하여 값진 전통문화의 계승과, 산자수명한 우리고장의 풍토를 더욱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 소득면에서도 고냉청정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어 시설원에 작물, 과실, 화훼 그리고 육질이 좋은 축산의 고소득 단지를 조성하여 명실 상부한 살기좋은 지상낙원으로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수사과는 현재도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써 크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망이 밝은 우리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고장은 우리 힘으로 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내가 이 고장의 주인이라는 향토사랑의 주인정신을 갖고 더욱 힘을 합하여 정신문화를 꽃피우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고랭지 특화작물을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리어 전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의 성취를 위하여 성실한 의정 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수군민 모두의 보다 큰 행운을 기원하며 본 행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0월 4일

국 회 의 원 정 세 균

의암 주논개 제전위원회 고문 및 위원명단

고 문 : 정세균(국회의원), 이광국(신한국당 무진장지구위원장), 김광수(국회의원),
정희택(군의회 의원), 한생수(경찰서장), 조금숙(교육장), 이경해(도 의회의원),
김명수(도 의회의원), 서완기(도 교육위원), 이규태(조선일보 전무이사),
최준호(재경향우회장), 이재식(남서울대학교 이사장)

명예 제전
위원장 : 김상두(군수)

제전위원장 : 김진영(문화원장)

위 원 : 장명열, 신영현, 박현규, 서석호, 문창규, 김좌형, 오봉수, 황용남, 박만덕, 이득춘,
엄재후, 이재택, 이성주, 정석현, 박찬수, 정석근, 유동승, 이대근, 김기수, 김여선,
박성수, 김두봉, 안성호, 박성근, 신현구, 정진창, 정용식, 최영훈, 한순태, 이윤열,
권종소, 장재영, 이희석, 김순홍, 유화열, 이왕주, 백영기, 양형식, 서정복, 김정수,
이택열, 윤철원, 강충희, 양해도, 황현엽, 최영익, 유인석, 은동표, 마순익, 최봉철,
장문엽, 김흥기, 강태순, 홍순목, 박준택, 임재천, 육동수, 이갑동, 송승현, 유재영,
김홍섭, 정익수, 차창석, 이승하, 양희영, 권희철, 김창수, 한병태, 박성근, 김재하,
김흥기, 고두영, 노영일, 양기홍, 이병만, 장예현, 송병석, 김용기, 신금암, 최영희,
문희병, 문택현, 이인화, 양우홍, 이동주, 최재근, 김복길, 김국자, 이명오, 곽한진,
황경운, 정재중, 이수용, 유기종, 성영열, 최광진, 최성택, 최영식, 김광규, 장경호,
김완진, 김종운, 임재봉, 김길래, 강병옥, 송재홍, 이인호, 손천엽, 마옥동, 강도식,
송재득, 법 윤, 이홍길, 윤장철, 김성진, 한 근, 유창열, 박홍민, 양성원, 조운제,
채규석, 전병철, 김진혁, 유기홍, 육경준, 신원호, 박선근, 한병두, 이재익, 이기두,
강관수, 박권익, 최용성, 김홍곤, 한원희, 오용인, 이진우, 이상규, 임성택, 여운성,
홍순태, 김인배, 양병조, 육종윤, 이근식, 이진소, 강종진, 이기환, 박희목, 김진홍,
김종열, 박용덕, 최용득, 박동식, 홍성동, 장원선, 윤용섭, 김인곤, 유주상, 장관빈,
김진식, 권희완, 정상윤, 이광수, 조길성

의암주논개제



전 행사 발자취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 (장계면 금덕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장수리 방촌공원내)

장수삼절(長水三節)

◀ 논개사당(論介祠堂)

- 1846년 장수현감 정주석이 사당 건립
- 1943년 2차 세계대전시 소실
- 1954년 군민성금으로 재건
- 1955년 함태영 전 부통령 현판 휘필
- 1974년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현위치로 이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전북기념물 제46호]

◀ 장수향교(長水鄉校)

- 1407년 조선조 어명으로 창건, 대성전, 부강문은 창건당시 원형이 보존된 팔포형 건물임.
- 정유재란시 왜군이 향교를 불태우려 하자 충복 정경손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 왜장이 이에 감복 침입말라는 글을 정문에 붙여 화를 면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건물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보물 272호]

◀ 타루비각(墮淚碑閣)

- 1678년(조선 숙종4년)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에 가기위해 말을 타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 숲속에 있던 장끼(평)가 날자 말이 놀라 뛰어 현감과 말이 함께 하천에 빠져 목숨을 잃음.
- 이에 통인은 다하지 못한 책무를 깨닫고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평과 말을 그리고, “타루”라 두글자를 쓰고 현감을 따라 순절.
- 이를 기리기 위해 타루비를 세움.



장수군 천천면 장관리

五 義



◀ 의병대장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 의병대장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입구)



▲ 백용성조사 유허비 (변암면 죽림리)



▲ 정인승 선생 유허비 (계북면 양악리)

관광명소



• 장안산

조선 8대 종산으로 불리운 장안산(1,237m)은 정상 주능의 갈대밭이 유명하며 1일 등산코스로 각광 받고 있음.

• 덕산계곡

장안산 군립공원으로서 용소와 기암괴석, 단풍 등이 조화를 이뤄 매년 피서객이 몰려오고 있음

• 방화동 휴가촌

국내 최초로 지정된 가족단위 국민관광지로서 자동차 야영장 등 공공시설을 마무리하고 민자 사업을 본격 추진, 급증하는 가족단위 관광에 대비하고 있음.

• 단풍의 절경 지지 계곡

28km의 긴 계곡 주변에는 동화담, 삼거폭포, 장안산, 논개 생가터, 대곡제 등 많은 관광 자원이 널려있어 춘, 하, 추, 동 절경이 펼쳐지며 특히 아름다운 가을단풍은 잘 그려진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함.

• 토옥등 계곡

남 덕유(1,508m) 깊은 계곡의 맑은물, 바위, 원시림과 양악호, 용연정 등 수려한 자원을 고루 갖춘 비지정 관광지, 계곡 및 양악마을을 숙박제공형 관광 민박촌으로 개발중.

• 와룡자연휴양림

성수상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야영장, 삼림욕장, 체련시설, 등산로 등이 갖추어져 있어 산행을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자연휴양 적지.

명 산 품

• 장수사과

토양이 기름지고 물빠짐이 좋으며 고랭지의 고온량 지수가 낮은 우리 고장은 천혜의 사과재배 적지,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는 타 지역에 비해 향이 좋고 당도가 월등히 높아 전국 명산품으로 자리잡아 성장 작목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음.



• 오미자

고산 약용식물로 시고, 달며, 떫고, 쓰고, 매워 오미자라 하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미자는 오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함.



• 곱돌석기

장수에서만 생산되는 곱돌로 만든 석기 제품은 전통과 역사가 깊고 돌의 질이 좋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특산품으로 여기에다 음식을 지으면 잘 식지 않고 맛 또한 일품.



팔공청년회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장: 황 경 운

부회장: 이 성 춘

사무장: 장 영 수

홍보부장: 이 지 수

문화체육부장: 문 종 태

직전회장: 허 원 인

부회장: 이 기 준

총무교육부장: 박 귀 현

지역사회부장: 양 충 오

농 협

“농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농협임직원이 힘껏 뛰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박 성 수

장 수 농 협 조 합 장

한 순 태

장 계 농 협 조 합 장

이 택 열

시외전화
바로텔

국제전화
001

시외전화 종전대회 지역번호만 누르세요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국통신장수전화국

국 장 장 쌍 환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축협은 장수 한우의 계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수 한우〉

— 장수 한우 계열화 사업 성과 —

- 값싸고 질좋은 혼합사료(T·M·R) 자체생산공급 개시
- 축분(우분) 유기질 비료 생산 개시
- 계열 장수 한우 100% 책임 판매 실시

※ 주문처 : 351-1600, 351-2391

조 합 장 장 재 영

진주농지개발조합

조 합 장 오 봉 수

사무실 (0652) 254 - 9015

자 택 84 - 0326

지역발전에 동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30회 군민의날을 축하합니다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한일건설	현장소장	정	낙	인
성원건설	현장소장	황	기	주
풍림산업	현장소장	이	승	희

빠른 창구, 친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북 은 행

장 수 지 점

支店長 **崔 永 益**

☎ 597-8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6-10

전 화 : (0656) 351-0777 ~ 80



信韓綜合安全株式會社 韓國交通安全株式會社 信韓電氣公社

(교통안전시설 및 제조 전문업)

代表理事 **李 鍾 淳**

本社 : 서울시 麻浦區 城山洞 51-17(城山B/D 201號)

支社 : 京畿道 高陽市 舟橋洞 619(태성B/D 3層)

TEL : 本社 (02) 323-5330(代) 支社 (0344) 965-7487

工場 (02) 375-4202 ~ 3 直通 (02) 323-5477

H·P(011) 259-4808 B·B (015) 278-5477



(유) 장 수 개 발

토공·철근 콘크리트공사 전문 건설업체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

대 표 김 길 래

☎ 597-8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63-3

전 화 : (0656) 351-2473, 5005

팩 스 : (0656) 351-5006

양담배 앓피우는
고장 장수!

한국담배인심공사

장 수 영 업 소

소 장 김 용 수



株式會社 東南레미콘



대표이사

유 동 승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공 장

전북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280

전 화 : (0671) 626-0909

(0656) 353-0115~7

팩 스 : (0656) 353-0118

● 사 무 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 336번지

전 화 : (0671) 31-0909

(0656) 626-0909

팩 스 : (0671) 33-9669

한국금융업계최초
ISO 9001 인증획득



교육보험은
21세기 TOP교육보험
고등플랜 · 대학플랜
종합플랜

재해보장은
V-가드(Guard)보장보험
국내최고의 재해 보장
(7억5천만원)

암보험은
마스터·비너스 암치료보험
암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보장

생명보험의
5대 필수상품

목돈마련은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높은 수익, 위험보장,
소득세면제

연금보험은
21세기슈퍼골드연금보험
고객의 평생연금 보장
활동기 재해보장

**교보생명, 금융업계 최초로
보험상품 ISO 9001 인증 획득!**

세계최초의 교육보험제도 창안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선도해온 교보생명

금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우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는 교보생명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으로
고객여러분의 풍요로운 21세기를 설계해 드립니다.



교보증권 / 교보문고 /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정보통신 / 교보실업 / 대산문화재단 / 대산농촌문화재단

